

아산핵포럼 2013 (*Asan Nuclear Forum 2013*)

정몽준 명예이사장 개회연설,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기조연설, 개리 세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, 루이스 에차베리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, 리홍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사무국장, 스키 타츠지로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회장,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, 무샤히드 후세인 시에드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상원의원 등 참가

아산정책연구원 (원장 함재봉)은 2013년 2월 19일 (화), 20일 (수) 양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산핵포럼 2013 (*Asan Nuclear Forum 2013*)을 개최한다.

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번 핵포럼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개회연설을 할 예정이다.

2월 12일 (화),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. 이와 같은 북한의 핵도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변국의 안보는 물론,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.

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원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주요 핵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전세계 30여개국 정상급 핵정책 전문가 300여명을 초청하였다.

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 (전 미 국무부 차관보)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, 4개의 플레네리 세션과 18개의 세부 세션 등 총 22개의 패널에서, 북핵 문제,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, 핵 비확산, 에너지안보,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, 원자력안전성,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,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등 정책적 함의가 높은 최신 핵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
한영 동시통역은 Regency룸에서 진행되는 플레네리 및 북핵 세션에서만 제공된다.

기자등록 및 인터뷰 문의: 이민희 연구원 (minheepd@asaninst.org / 02-3701-7377)

아산핵포럼 2013 웹사이트 <http://www.asannuclearforum.org>

2월 19일, 20일 아산핵포럼 생중계 <http://www.ustream.tv/channel/asaninst>

주요 연사 리스트

Robert Gallucci (로버트 갈루치) – 맥아더재단 회장,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

Gary Samore (개리 세모어) – 하버드대 벨퍼국제관계연구소장,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(NSC) 대량살상무기 (WMD) 조정관

Luis Echavarri (루이스 에차베리) – OECD 원자력기구 (NEA) 사무총장

Gareth Evans (가렛 에반스) – 호주국립대학교 총장, 전 호주 외교장관

Alfredo Labbe (알프레드 라베) – UN 칠레대사

Scott Sagan (스콧 세이건) – 스탠퍼드대학교 석좌교수

Suzuki Tatsujiro (스즈키 타츠지로) –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회장

Dae Chung (정 대) – 미국 에너지부 보건안전안보실 원자력안전기술 수석 부차관

Bruce Bennet (브루스 베넷) –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, 군사전략분석가

Piet de Klerk (피엠티 드 클러) – 요르단 주재 네덜란드 대사, 2014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

Endo Tetsuya (엔도 테츠야) –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초빙 선임연구위원, 전 북일수교교섭 담당 대사

Yang Yi (양 이) – 전 중국국방대학교 전략문제연구소장

Li Hong (리 홍) –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(CACDA) 사무국장

Scott Snyder (스콧 스나이더) –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, 한반도 전문가

Mushahid Hussain Sayed (무샤히드 후세인 시예드) – 파키스탄무슬림연맹 상원위원

Shi Yinhong (스인홍) – 베이징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

